



시리즈 우승 V3! 팬 여러분과 함께 해

PROFESSIONAL BASEBALL

흥행 돌풍 2010 프로야구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 프로야구. 계절을 잊은 한파와 폭설도, 2010 남아공 월드컵의 붉은 물결도, 길었던 여름의 폭염과 태풍, 폭우도 프로야구의 높은 인기 기세를 꺾지는 못했다. 특히 역대 최다 관중 및 통산 관중 1억 명 돌파를 비롯해 연속 홈런 및 시즌 연속 퀄리티스타트 세계 신기록, 정규 이닝 최다 탈삼진 등 다채로운 신기록이 쏟아져 재미를 더했다.

글 임동근 기자·사진 연합뉴스 DB



한화 류현진은 시즌 23경기 연속 퀄리티스타트와 지난해부터 이어진 29경기 연속 퀄리티스타트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평균자책점과 탈삼진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국내 최고의 좌완 투수임을 증명했다.



2010 PROFESSIONAL BASEBALL 2010 PROFESSIONAL BASEBALL 2010 PROFESSIONAL BASEBALL 2010 PROFESSIONAL BASEBALL 2010 PROFESSIONAL BASEBALL 2010 PROFESSIONAL BASEBALL 2010 PROFESSIONAL BASEBALL 2010 PROFESSIONAL BASEBALL 2010 PROFESSIONAL BASEBALL 2010 PROFESSIONAL BASEBALL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는 '사우나 시리즈'라고 불릴 정도로 매 경기 각본 없는 드라마를 연출했다. 결국 한국시리즈의 승리는 SK에게 돌아갔다.

값은 '악재' 불구, 최다 관중 기록

2010 프로야구가 SK 와이번스의 한국시리즈 우승으로 종료됐다. 두산과 롯데의 준플레이오프, 삼성과 두산의 플레이오프에서는 '사우나 시즌'이라 불릴 정도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가 모두 5차전까지 진행됐다. 삼성과 두산의 5경기는 모두 1점차 승부로 경기가 종료될 때까지 어느 팀이 승리할지 전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였다. SK와 삼성의 한국시리즈에도 잔뜩 기대를 가졌지만 결국 SK가 4연승을 거두며 싱겁게 끝났다. 그러나 올해 프로야구는 흥미진진한 경기들이 많아 어느 때보다 더 큰 재미와 감동을 전했다. 3월 27일 개막전 4개 구장 매진으로 흥행을 예고했던 2010 프로야구는 9월 26일 정규 시즌 마지막 날 기준으로 역대 최다 관중이었던 지난해의 592만5285명을 넘어선 592만8626명을 기록했다. 특히 5월 30일에는 1982년 프로야구가 출범한 이후 29시즌 만에 누적 관중 1억 명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올해 관중물이에는 여러 가지 복병이 자리하고 있었다. 우선 개막 2주가 넘도록 중부 지방의 최저기온이 0도 가까이 떨어지는 저온 현상을 보였다. 중남미 출신 선수들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더그아웃에는 난로가 등장하기도 했다. 특히 4월 14일 광주구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는 시작 전 함박눈이 퍼부으면서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프로야구가 시작된 이래로 페넨 트레이스에서 눈으로 경기가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또 지난 여름에는 서울, 경기 등 중부 지방에 15주 연속 주말에 비가 내려 취소되는 경기가 부지기수였고,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야구장 시설물이 파괴돼 경기를 하지 못하는 등 시즌 내내 기상 악화로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6월에는 2010 남아공 월드컵이 열렸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자료에 따르면 월드컵이 시작된 6월 11일부터 19일간 프로야구 60경기에는 관중 53만1천308명이 야구장을 찾았다. 이 기간 경기당 평균 관



■ 롯데 거포 이대호는 9경기 연속 홈런으로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다. 또 타율(0.364)과 홈런(44개), 타점(133개) 등에서 1위를 차지하며, 트리플 크라운을 두 차례 달성한 첫 선수가 됐다.

2010 PROFESSIONAL BASEBALL 2010 PROFESSIONAL BASEBALL 2010 PROFESSIONAL BASEBALL 2010 PROFESSIONAL BASEBALL 2010 PROFESSIONAL BASEBALL 2010 PROFESSIONAL BASEBALL 2010 PROFESSIONAL BASEBALL 2010 PROFESSIONAL BASEBALL 2010 PROFESSIONAL BASEBALL

■ 올해 정규 시즌 관중은 역대 최다인 총 592만8626명이었다. 특히 기상이변, 월드컵 등의 약재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달성해 프로야구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중은 8천855명으로 월드컵 전 경기당 평균 1만2천523명보다 29.3% 줄었다. 그러나 지난 한일 및 독일 월드컵 기간과 비교하면 선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목표 관중 600만 명 돌파에는 실패했지만 올해 관중 동원 성적표는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롯데 자이언츠(사직구장, 117만5천665명)와 두산 베어스(이하 잠실구장, 107만673명), LG 트윈스(101만78명)는 각각 100만 관중을 불러 모아 한 시즌 3개 팀 100만 관중 동시 동원의 첫 기록을 세웠다. SK 와이번스(문학구장, 98만3천886명)도 100만 명에 가까운 관중을 끌어들이었다.

눈에 띄는 신기록·진기록 열전

올해만큼 다양한 기록들이 쏟아진 적도 드물었던 것 같다.

가장 돋보인 것은 롯데 이대호(28)가 세운 9경기 연속 홈런 세계 신기록이다. 8월 4일 잠실 두산전부터 홈런을 때리기 시작한 이대호는 14일 광주 KIA전까지 9경기 연속 담장을 넘겨 미국프로야구의 켄 그리피 주니어(1993년), 돈 매팅리(1987년), 대일 룡(1956년)이 기록한 8경기 연속 홈런을 뛰어넘었다.

또 이대호는 타율(0.364)과 홈런(44개), 타점(133개) 등에서 1위를 차지하며, 2006년 이후 생애 두 번째이자 트리플 크라운을 두 차례 달성한 프로야구 첫 선수로 기록됐다. 이밖에 출루율(0.444), 최다 안타(174개), 득점(99개), 장타율(0.667) 등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국내 프로야구 최초로 타격 부문 7관왕의 위업을 달성했다.

타자 부문을 이대호가 독식한 가운데 도루 부문에서는 롯데 김주찬(29, 65개)과 시즌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 끝에 66개를 기록한 '슈퍼소년' 이대형(27, LG)이 1위를 차지했다. 이 기록은 국내 최초 4년 연속 60도루의 신기록이기도 했다.

‘괴물투수’ 23연속 퀄리티스타트 신기록

투수 부문에서는 한화의 ‘괴물 투수’ 류현진(23)이 시즌 23경기 연속 퀄리티스타트와 지난해부터 이어진 29경기 연속 퀄리티스타트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이는 2005년 미국프로야구 크리스 카펜터(이하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기록한 한 시즌 22경기 연속 퀄리티스타트와 1968년 26경기 연속 퀄리티스타트로



올해 프로야구는 다양한 신기록이 쏟아져 재미를 더했다. KIA 이용규의 한 이닝 최다 타점, SK 박경완의 포수 첫 통산 300홈런, LG 이대형의 4년 연속 60도루 등의 기록이 달성됐다.

최다 연속 기록을 수립한 밥 김슨을 뛰어넘은 성적이었다. 류현진은 평균자책점(1.82)과 탈삼진(187개)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또 류현진은 5월 11일 청주구장 LG전에서는 9이닝 동안 17타자를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기존 최동원, 선동열, 이대진 등 3명이 갖고 있던 최다 탈삼진 기록(16개)을 갈아치웠다. 연장까지 포함한 한 경기 최다 탈삼진은 1991년 선동열이 13회까지 가서 기록한 18개이다.

SK 박경완(38)의 국내 프로야구 첫 포수 통산 300홈런도 눈여겨봐야 할 기록이다. 박경완은 4월 30일 문학 LG전에서 포수 첫 300홈런 고지를 밟았다. 박경완은 장종훈(은퇴)과 이승엽, 양준혁(은퇴), 심정수(은퇴)에 이어 역대 5번째 300홈런 달성의 주인공이 됐다. 빅센 베테랑 송지만(37)도 9월 24일 잠실 두산전에서 홈런을 때려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6번째로 300홈런 고지를 정복했다. 한편 LG 조인성(35)은 포수로는 국내 최초로 시즌 100타점의 위업을 달성했다.

KIA의 이용규(25)는 7월 29일 사직 롯데전에서 3회초 3점포와 만루포 두 방으로 7타점을 기록해 한 이닝 최다 타점 신기록을 세웠다. 이용규는 이날 8회초에 1타점을 추가해 한국프로야구 한 경기 최다 타점 타이 기록에도 이름을 올렸다. KIA는 이날 경기에서 3회초 이용규의 3점과 4점 홈런, 채종범(33)의 2점, 최희섭(31)의 1점 홈런으로 프로야구 역대 최초 한 이닝 사이클링 홈런의 대기록도 완성했다. 한편 이용규는 8월 29일 광주 넥센전에서 8회말 투수 박준수(33)와 20구까지 가는 끈질긴 승부를 펼치며 한 타자 최다 투구수라는 이색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한편 SK 투수 김광현은 6월 10일 문학 삼성전에 선발 등판해 9회초 2사까지 삼진 10개를 슈아내며 단 한 개의 안타도 허용하지 않았다. 삼성은 볼넷 3개로 겨우 3차례 1루에 나갔을 뿐이었다. 그러나 아웃카운트 1개를 남기고 던진 113번째 공이 삼성 최형우의 방망이에 걸려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가 됐다. 결국 2000년 송진우(은퇴)의 10번째 노히트노런 이후 10년 만의 기록 달성은 물거품이 됐다. 그러나 김광현은 10월 15일 문학에서 열린 코리안시리즈 1차전에서 선발 등판해 6타자를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한



2010 PROFESSIONAL BASEBALL. 2010 PROFESSIONAL BASEBALL. 2010 PROFESSIONAL BASEBALL. 2010 PROFESSIONAL BASEBALL. 2010 PROFESSIONAL

SK가 2010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야신' 김성근 감독의 지도력과 노장 선수들의 투혼, 혹독한 훈련으로 다져진 타격과 수비가 이뤄낸 성과였다.

국시리즈 신기록을 수립했다.

롯데와 한화, 한 경기 51개 안타 합작

또 4월 9일 사직 롯데-한화전에서 신기록이 3개나 나왔다. 한화 김태완(26)은 4안타(2홈런), 4사구 4개로 8번 출루에 성공해 한 경기 연속 출루 신기록을 수립했고, 롯데 가르시아는 7안타로 한 경기 최다 안타 기록을 달성했다. 이날 양팀에서 나온 안타는 역대 최대인 51개(한화 27개, 롯데 24개)였다.

한편 LG의 스위치히터 서동욱(26)은 5월 12일 청주 한화전에서 좌·우 연타석 홈런(통산 2번째)을 터뜨리는 '묘기'를 선보였으며, 5월 1일 문학 SK전에서는 두 명의 이병규가 4회초에 나란히 홈런을 때리며 '한 팀 동명이인 한 이닝 홈런'이라는 재미있는 기록을 남겼다.

올 시즌 '대포 군단'으로 거듭난 두산은 대타 홈런 부문에서 돋보였다. 유재웅(31)은 6월 13일과 15일 각각 대타로 출전, 모두 홈런포를 쏘아 올리며 대타 연타석 홈런(통산 2번째)을 기록했다. 또 최준석은 9월 5일 잠실 KIA전에서 9회말 역전 끝내기 대타 홈런(통산 5번째)을 날렸다.

한편 철벽 계투진과 마무리로 중무장한 삼성은 5회까지 리드 시 승리 행진을 53경기로 마감했다. 대기록은 9월 4일 사직 롯데전에서 깨졌다. 삼성은 4회초 1점을 얻어 앞서가다 7회말 롯데의 2사 1, 2루 상황에서 투수 정현욱(32)이 폭투를 던져 점수를 내줬다. 이후 양팀은 연장으로 돌입했고, 승부는 11회말에 갈렸다. 롯데의 2사 1, 3루 상황에서 삼성 구원 투수 임진우(23)가 폭투를 던지며 결국 5회까지 리드 시 시즌 전승의 기록은 날아가 버렸다.

SK는 2008년 세운 구단 최다승(83승)에 1승을 더해 84승으로 새 역사를 만들었다. 또 팀의 86번째 경기인 7월 20일 목동 넥센전을 승리하며 역대 최소 경기 60승도 달성했다. 이날 기록은 1985년 삼성의 89경기 60승(1무 28패) 기록을 3경기 앞당긴 것이었다. **Y**